

제5차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쏭잡이 재미에 흠뻑”

- 남해 문항마을 방문, 지방행사로 의미 더해 -



도 시민들에게 어촌 어항 어장의 각종 체험 거리를 소개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그 5번째 행사가 지난 8월 27일에서 28일, 1박2일 동안 어촌체험지정마을이며 아름다운 어촌 100선에 선정된 경남 남해군 문항마을에서 한국어항협회 주관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행사는 지방행사로 부산 경남 지역 도시민 80명이 참가, 문항마을 및 남해군 일대 어촌어항에서 어촌민박, 쫄잡이, 수산과학원 방문, 유람선 승선, 수산물 시식, 죽방렴 견학, 총렬사 방문 등 다양한 어촌 및 해양 체험을 즐겼다.

주요 일정을 보면 27일 첫째날 부산 동명대학교에서 출발하여 지족마을에 도착, 원시전통어업인 죽방렴을 견학하고 상주에서 유람선에 승선, 남해안 일대 해안 절경 및 어촌 전경 등을 둘러보았다. 이후 국립수산과학원 패류연구센터를 방문, 김병학 연구사로부터 패류생태에 관한 설명을 받고 실험동을 둘러보았다.

저녁에 방문어촌인 문항 마을에 도착, 부녀회에서 차려준 저녁을 먹고 난 후 캠프파이어와 함께 지역 특산 수산물인 전어와 조개구이로 수산물 시식회를 가졌다.

이튿날 아침에는 문항마을의 주요 어촌체험인 쫄잡이를 즐겼으며 이후에 총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적인 총렬사와 이락사를 방문하고 행사를 무사히 마쳤다.

이번에 참가한 오인환씨는 “쏭 쫄 뽑아올리는 쫄잡이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은 몰랐다”며 “행사가 자녀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하다”고 평했다.

한국어항협회는 이날 행사의 관련 사진과 참가후기 등을 협회 사이트(www.fipa.or.kr)에 게재, 일반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어촌관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이번행사는 ‘KBS 세상의 아침’ 제작팀이 함께하여 쫄잡이 과정을 취재 8월 30일 아침에 방영하였다.



방송작가들과 함께 한 우리 어촌 · 수산물 체험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8월 31일,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25명을 초청하여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선감어촌계에서 어촌 및 우리 수산물 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방송 드라마, 라디오에서 활동중인 방송작가들을 초청, 어촌을 방문토록하여 어촌과 우리 수산물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우호세력을 형성토록 함과 동시에 집필시 소재로 어촌과 우리 수산물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8월 31일 오전 어촌체험지정마을인 선감어촌계를 방문한 방송작가들은 바지락잡이와 게잡이를 즐겼으며 어촌체험안내센터에서 점심으로 지역 특산 수산물인 생선회와 조개구이로 우리 수산물 시식회를 가졌다.

오후에는 한국해양연구원을 방문, 우리나라 해양연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받고 해양환경 시뮬레이션 센터를 관람했다.